

도, 도민 아이디어 접수 정책 반영

자유제안·테마제안 추진, 여론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북재정' 사이트 운영 등 통해

전북도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상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받는 '자유제안'을 추진하고, 10대 핵심프로젝트를 포함한 도정 역점시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공모하는 '테마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수제안 11건을 선정,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수요와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정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민 여론조사는 신규시책 발굴, 예산편성, 경제정책 수립 등 5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가 부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으로, 기획, 예산, 공보 등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도정에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예산 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결과 활용과 피드백 관리에도 힘써 주민수요에 따른 소통 행정과 도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답아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 주민과 재정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지속 운영한다.

오는 2월말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2017년 예산 현황과 재정 의견,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4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10월에는 2018년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관내 시·군·구 등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계층을 대

상으로 예산 관련 교육은 물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재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5년 재정 통합 사이트 '전북재정'을 구축하고, 예산과 결산현황, 재정공시자료 등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원클릭으로 연계하고 있다.

도표 등 시각화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운용 및 일일 세입·세출현황을 공개하고, 성과계획서 및 보조사업 평가결과 등 재정공시 항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예산서와 연계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전주시, 옥외광고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6년도 전국 옥외광고업무 추진실적평가 결과 전북도와 전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와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동안 시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 같이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옥외광고를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 간판 개선 시범사업 추진,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추진, 공공목적 광고물정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부터는 공모방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지원을 함으로써 간판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시켜왔다.

전북도는 올해 간판개선사업 및 좋은간판나눔프로젝트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 남원군, 완주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1.6억원의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3월중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공모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광고물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4년부터 '아름다운 간판상'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4개분야에 547점이 응모할 정도로 참가 열기가 높았다.

전북도는 올해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품격 높은 간판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생활안전지킴이 50명 위촉

전북도는 7일 도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생활안전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 송하진 지사는 생활안전지킴이들에게 전문지식과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자부심을 갖고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도에서는 다문화민 수사정보 확보와 특별사법경찰팀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활안전지킴이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생활안전지킴이의 부정·불량식품 판단, 위해 환경 확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식별 등의 전문 능력을 활용해 도민 생활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제보활동과 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도민 생활안전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7일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생활안전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전북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전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선정된 3개 시범사업의 본격추진에 앞서 사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범사업의 목적, 활용데이터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민안전, 귀농귀촌, 장사시설 분야의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현업부서, 정보화부서 등 25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다.

'빅데이터 시범과제'는 올 3월부터 도민안전, 귀농귀촌, 장사시설 분야 등 3개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지원과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협업체계 구축, 역량강화 교육도 계획 중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건설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도,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 등과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7일 도내 건설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협회 및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들과의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GS건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사 호남지사장들과 대한건설협회 도회 회장단 5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등 도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토론회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부문 SOC규모 축소에 따른 건설업의 어려움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사와 지역업체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전북도에서는 도내 대형사업에 지

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대형사에서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업체를 30% 이상 참여토록 요청했으며, GS건설 같은 호남지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고 남북도로 II단계 공사 참여시에는 본사에 강력 건의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도 대형사와 컨소시엄 확대를 위해 대형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신뢰도 제고 및 지역건설업체 규모 확대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도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개발청 및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대형건설사, 건설현장, 발주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확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6차 산업 현장코칭 제도 운영

도, 경영전략·마케팅·디자인·상품화 등 컨설팅 지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전문가 중에서 신청업체와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위촉) 후 2~4회 현장코칭을 수행한다.

현장코칭 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디자인, 상품화, 제품개발, 생산성향

상, 품질/위생 등 6차산업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아우른다.

기업의 안전, 기술, 경영, 재무관리, 세무관리 등과 같은 세무 문제, 국내외 판매와 같은 마케팅 문제도 해결해, 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실질적인 기업 현장코칭을 받은 후

사업에 큰 변화를 겪었다는 6차 산업업체들이 적지 않다.

정읍시 '의름 농부' 관계자는 "포장 개선,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 시장 공략 등 현장코칭을 받아 2015년 대비 약 233%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에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도내 6차산업화의 기반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삼락농정의 핵심경영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